

朱橚의 生涯와 著書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韓國韓醫學研究院²

池明順¹ · 安相佑² · 尹暢烈^{1*}

Study on the Life of Jusuk(朱橚) and His Writings.

Ji Myoung-soon¹ · Ahn Sang-woo² · Yoon Chang-yeol^{1*}

¹Dep.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²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ng of Jujeong(周定王) named Jusuk(朱橚) was thought to be an exemplary character as a scholar and a politician, who was not an Oriental medical doctor but a compiler publishing a set of three medical books and a set of volumes on famine relief to save people in the areas of natural disasters or spring poverty. He was born on July 1, 1361 as the fifth son of Juwonjang(朱元璋), the first Emperor (1368-1398) of the Myeong-dynasty (1368-1644) of China. It was not clearly known about his mother other than assuming, but hard to ascertain, that she was from Goryeo, the ancient countr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ecame a loyal concubine of Juwonjang(朱元璋). He was the brother of Yeongrakje(永樂帝), the third Emperor(1402-1424) of the Myeong-dynasty. As a focal figure in the political forces at that time in the Myeong-dynasty, he had a life full of vicissitudes such as being removed from office, being exiled to a remote place, being scattered far and wide between family members, being implicated in the rebellion and so on. It seemed that he brushed up on his study, taking a class on an emir until the year of 1380 at the age of twenty. And he published 『Bosaeng-yeorok(保生餘錄)』 and 『Bojebang(普濟方)』 for eight years from 1381 to 1389 (at age 21-29), 『Sujinbang(袖珍方)』 in 1391 (at 31), and 『Guhwangboncho(救荒本草)』 in 1406 (at 46), republishing 『Sujinbang(袖珍方)』 in 1415 (at 65). Endowed with a brilliant talent from early days, Yeong-rakje(永樂帝) wrote the poem(the poem paying a high tribute to a King) well and composed one hundred pieces of poetry on the story of the Won Dynasty (1271-1368) of China. He led a quiet life in his later years and died a natural death at Gaebong(開封, a city in China) at 65 in 1425. He had 15 sons including king of Juheon(朱憲王) Yudon(有敦) and 11 daughters. His books contributed absolutely to the growth of Oriental medical field, and also to the increase in population, having influence on bringing about compilation of the books on Oriental medicine and famine relief of the Joseon Dynasty (the old Korean kingdom from AD 1392 to 1910).

Key Words : Jusuk(朱橚), Juwonjang(朱元璋), Myeong-dynasty

I. 序論

周定王 朱橚은 명나라 太祖 洪武帝(1328~1398)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永樂帝의 아우로 1361년 元나라 末 紅巾族의 반란이 매우 혼란한 시기에 태어났다.¹⁾ 朱元璋이 1368년 명나라를 건국하고 황제로 등극함에 따라 藩王으로 봉해지지만 실제 周王으로 開封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1381년(21세)부터이다. 1425년 (65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명나라 초기 정치권력의 중심인물로 과단만장한 삶을 살았다.²⁾ 朱橚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고 博學多識 하였다. 정치적인 이유로 醫學과 本草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醫師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保生餘錄』, 『普濟方』, 『袖珍方』 등 3권의 醫書를 편찬하고, 구황서의 시초로 평가 받고 있는 『救荒本草』를 간행하였다. 이와 같은 저술활동은 명나라 건국초기에 爲民政策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愛民精神이 담긴 德治主義의 실천이라 하겠다. 이들 서적은 명나라 초기 의학발전에 공헌하였음은 물론 인구증가에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普濟方』은 『四庫全書·子部·醫家類』에 수록되었고, 『袖珍方』은 1415년 수정보완하여 재 간행하였으며 『救荒本草』는 그 실용적 가치가 높아 30여 차례나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李時珍은 『本草綱目』의 저술에 많이 인용하였고, 1639년 徐光啓는 『農政全書』에 삽입하였으며, 『四庫全書·子部·農家類』에도 수록되었다. 또한 朝鮮의 醫書와 救荒書 편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朱橚의 생애와 저서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의 업적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朱橚의 出生, 朱橚의 學文, 周定王 朱橚, 同母弟兄 永樂帝, 이슬람교도와

謀叛事件, 朱橚의 死 등 朱橚의 生涯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가 저술한 『保生餘錄』, 『普濟方』, 『袖珍方』, 『救荒本草』 등 4종의 서적의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文獻記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朱橚의 生涯

1) 朱橚의 出生

朱橚은 1361년 7월 1일 朱元璋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³⁾ 아버지 朱元璋은 당시 34세로 元나라 末 紅巾族의 반란의 우두머리로 南京과 그 주변지역을 점령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朱元璋은 朱橚이 8살에 되던 1368년 초 마침내 스스로 明의 황제임을 선포하고 난징을 수도로 정했다. 太祖가 그의 공식 諡號이나 통상적으로 洪武帝로 불린다.⁴⁾ 洪武帝는 20여명의 妃嬪을 두었으며 이들에게서 26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낳았다.^{5), 6), 7)} 그렇기 때문에 朱橚의 생모가 누구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明史에 “皇第五子生, 孝慈皇后⁸⁾ 出也.” “太祖, 二十六子. 高皇后生太子標, 秦王棖, 晉王橚, 成祖, 周王橚.”라고 기록하고 있지만⁹⁾ 당시 후궁의 아들은 정실의 소생으로 입적되는 전통적 방식



그림 1. 朱橚像
(한국한의학연구원 제공)

* 교신저자 : 尹暢烈.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yooney@dju.ac.kr Tel: 042-280-2601
접수일(2010년 2월 26일), 수정일(2010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5월 21일)

1) 明史·列傳第四·帝王一, 第十二冊. 中國. 영인본. 1974. p.3559.
2) 羅桂環. 朱橚和他的<救荒本草>. 自然科學史研究. 北京. 1985. pp.189-194.

3) 明實錄·太祖實錄. 卷九. 中研院史語所校印本. 第一冊. 中國. 영인본. p.115.

4)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5) 李清. 三垣筆記. 中華民國. 北京. 中華書局. 1982. p.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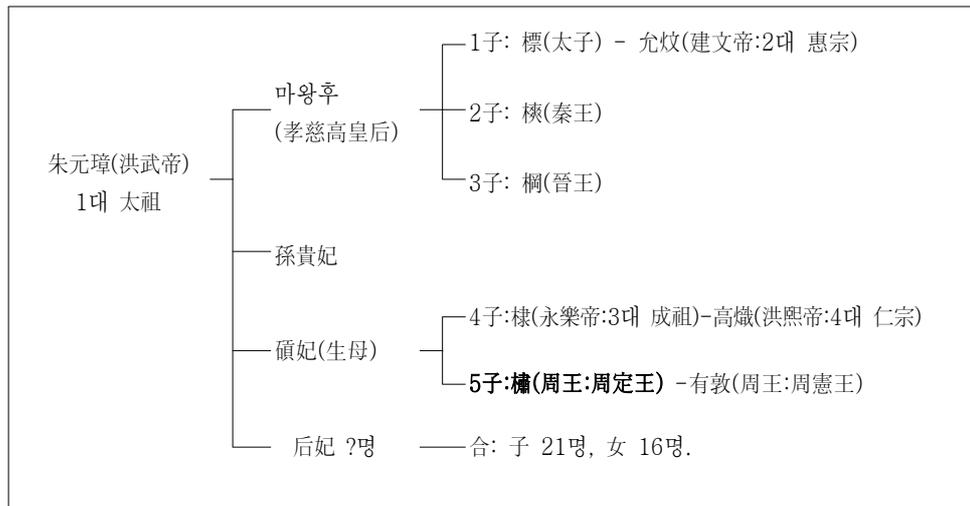


그림 2. 朱橚의 家系圖

에 따라 孝慈高皇后가 법적인 어머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潘禔章, 李清과 동시대의 查繼佐는“或曰高皇后无子, 育于孫貴妃, 妃卒, 服以慈母斬衰三年.”이라고 하였고 10) 또 孟森은 『明史講義』에서 생모가 高麗 출신의 碩妃의 소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¹¹⁾ 朱橚이 태어날 당시 朱元璋은 조공으로 바쳐진 고려인과 몽고인들을 후궁으로 거느리고 있었다.¹²⁾ 하지만 朱橚의 생모에

관한 확실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永樂帝 朱棣와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¹³⁾ 朱橚의 家系圖는 그림 2와 같다.

2) 朱橚의 學文

洪武帝는 본인 출신에 대하여 콤플렉스가 많아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고 또 본인이 배움에 기회가 없었음을 한탄하였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는 어려서부터 훌륭한 여러 스승들로 하여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¹⁴⁾ 이런 이유로 朱橚은 어려서부터 실력 있는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학문의 기초를 닦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朱橚은 학문을 좋아하고 博學多識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도 능하여 永樂帝를 위해 詞賦를 잘 짓고, 원나라 궁녀의 이야기를 듣고 100편의 詩로 짓기도 하였으며¹⁵⁾ 『袖珍方』의 序文을 직접 쓰기도 하

6) 明史·列傳第四·帝王一, 第十二冊. 中國. 영인본. 1974. p.3559.
 7) 吳晗 原著, 박원호 옮김. 朱元璋傳. 서울. (주)지식산업사. 2003. p.401.
 8) 孝慈王后 馬氏: 1332~1382. 宿州(지금의 安徽省)사람. 어려서 조실부모함. 이름은 馬秀英, 父親은 馬公, 母親은 鄭媼, 養父 郭子興, 別稱은 大脚馬王后: 마왕후가 진족을 하지 않아 발이 큰을 이르는 말. 興宗 孝康皇帝 標, 차남 秦愍王 棧, 晉恭王 櫚, 寧國公主, 安慶公主 2녀를 두었다.
 9) zh.wikipedia.org/wiki/朱元璋
 朱棣, 四子, 明成祖, 初封燕王(孝慈高皇后出, 一说碩妃出)
 朱橚, 五子, 周定王, 初封吳王(孝慈高皇后出, 一说碩妃出)
 10) 查繼佐. 罪惟錄·列傳四·周定王橚. 四部叢刊三編. 第十三冊.
 11) zh.wikipedia.org/wiki/朱元璋
 碩妃, 高麗進貢的女子, 有些歷史學家認為她是明成祖朱棣生母
 12) Edward L. Dreyer. Early Ming China-A Political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CA. 1982. pp.1355-1435.
 13) 羅桂環. 朱橚和他的<救荒本草>. 自然科學史研究. 北京. 1985. pp.189-194.
 14) 吳晗 原著, 박원호 옮김. 朱元璋傳. 서울. (주)지식산업사. 2003. pp.405-406.
 15) 張廷玉等撰. 明史十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1.

였다. 이 序文에서는 “予當弱冠之年하여 每念醫藥이 可以救夭傷之命하며 可以延老疾之生이라하여 嘗令集 保生餘錄과 普濟等方하다”라고 하여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음을 깨달아 『保生餘錄』과 『普濟方』를 편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⁶⁾ 朱橚가 의서 편찬에 직접 관여하여 지휘할 정도면 어려서부터 의학에 대한 관심은 있었음은 물론이고 상당히 높은 의학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朱橚은 백성들이 饑饉으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백성 스스로가 먹을 것을 분별하여 구할 수 있도록 『救荒本草』를 지었다. 『救荒本草』는 이제까지의 本草書와는 달리 의학 적 측면이 아닌 식품학적인 측면에서 씌어졌으며, 채취시기, 생산지, 채취방법, 조리법을 설명하였고 식물의 그림을 그려 누구나 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점들을 볼 때 朱橚은 학문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明史의 기록에는 “東書堂을 열고 長史 劉淳을 스승 삼아 세자들을 가르쳤다¹⁷⁾”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교육자로서의 활동도 엿보인다.

3) 周定王 朱橚

1368년 洪武帝의 황제 등극 후 2년이 지난 1370년(10세)에 吳王으로 봉해지고, 8년 후 다시 周王으로 바꾸어 봉해졌으나 燕王, 楚王, 齊王의 三王과 함께 太祖의 고향인 안휘성 鳳陽에 머물렀다. 실제로 왕으로서 정치의 시작은 蕃地인 開封에 나아가 宋나라 때의 故宮을 周王府로 삼았던 1381년(21세)부터이다. 정치 행보 초기였던 1381~1389년(21~29세)의 약 8년 동안 『保生餘錄』, 『普濟方』을 편찬하고, 1391년(31세)에 『袖珍方』을 간행하였다. 永樂帝가 즉위한 1403년¹⁸⁾에는 洛陽으로 보내 주겠다는 제의도 사양하고 開封으로 돌아와 1406년(46세)에 『救荒本草』를 간행하고 1415년(55세)에 『袖珍方』을 재 간행하였다. 周王으로 봉해진 이후 開封을 떠난 기록은

pp.3565-3566.

16)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p.2441-2442.

17) 明實錄·太祖實錄. 卷九下. 第六冊. 中國. 영인본. p.130.

18) 明實錄·宣宗實錄. 卷八上. 第十冊. 中國. 영인본. p.149

두 번이 있는데 1389~1390년(29~30세)까지로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雲南으로 옮겨갔을 때와 1399~1402년(39~42세) 建文帝 재위 기간에 벼슬이 삭탈되었던 시기이다. 1425년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40여년을 周王으로서 開封지역을 다스렸다. 死後 宣德帝는 周王의 ‘定’이라는 諡號를 내려 후대에 周定王으로 불리게 되었다.¹⁹⁾

4) 同母弟兄 永樂帝

『明實錄』을 보면 建文帝가 朱棣에게 양위하여 등극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朱橚와 朱棣 형제간의 우애가 증명되고 있다. 1398년 5월 朱橚이 開封을 다스리고 있을 때 洪武帝가 崩御하자 조카 建文帝가 즉위하였고 제왕들의 반란을 염려하여 宗藩의 지위를 박탈하였다. 제왕들 중에서는 燕王 朱棣의 세력이 가장 커서 제거하길 원했으나 죄를 논할 명분이 없자 黃子澄의 敲山震虎(산을 쳐서 호랑이를 진노하게 함) 同母弟兄 朱橚을 잡아 朱棣를 반역의 길로 나오게 하는 계략을 활용해 먼저 朱橚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였다.²⁰⁾ 얼마 지나지 않아 周王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드디어 曹國公 李景隆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河南으로 가도록 하여 王城을 포위하고 王府의 신하들을 체포하였으며 王 및 世子를 다그쳐 官을 달도록 하고 南京로 끌고 와 王爵을 삭탈하여 庶人으로 만들고 雲南으로 보냈으며 처자들은 각각 다른 곳에 안치하고 담장 구멍을 통해 음식을 내주는 등 극한 곤욕스러움을 당하도록 하였다.²¹⁾ 1402년(42세) 1월 朱棣의 靖難의 병사가 南京에 이르렀을 때 建文帝는 朱橚을 불러들여 南京에 거하게 하였다. 그 목적은 朱橚을 인질로 삼아 朱棣를 협박하려는 것이었다. 드디어 4년 6월 城이 파괴되던 날 『太宗實錄』에는 형제애를 표현하는 감동시킴게 하는 내용의 “周王曰, 奸惡屠戮我兄弟, 賴大兄救我, 今日相見, 眞再生也. 言訖復哭, 哭不止, 上慰止之, 與周王并轡至金川門下馬, 握手登樓” 기록이 있다.²²⁾

19) 明實錄·宣宗實錄. 卷八上. 第十冊. 中國. 영인본. p.164.

20) 明實錄·太宗實錄. 卷一. 第六冊. 中國. 영인본. pp.6-7.

21) 張廷玉等撰. 明史十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1 pp.3565~3566.

22) 明實錄·太祖實錄. 卷九下. 第六冊. 中國. 영인본.

관계	年號	廟號	姓名	諡號	出沒年度	在位年度	기타
我			橚	周定王	1361~1425	-	朱元璋의 다섯째아들
子	-	-	有敦	周憲王	1379~1439	-	朱橚의 장남
父	洪武	1대太祖	朱元璋	洪武帝	1328~1398	1368~1398	
異腹兄	-	興宗	標	懿文皇太子	1355~1392	-	朱元璋의 장남
姪	建文	2대惠宗	允炆	建文帝	1377~1402	1398~1402	朱標의 장남
同母兄	永樂	3대成祖	棣	永樂帝	1360~1424	1402~1424	朱元璋의 넷째아들
姪	洪熙	4대仁宗	高熾	洪熙帝	1378~1425	1424~1425	朱棣의 장남
姪子	宣德	5대宣宗	瞻基	宣德帝	1398~1435	1425~1435	朱高熾의 장남

표 1. 朱橚과 관련 있는 人的關係

成祖 永樂帝가 南京에 들어가 정권을 탈취한 뒤에 爵位를 회복시키고 祿 5천석을 더하여 주었다. 1403년(永樂 元年) 正月에 명을 내려 과거의 封地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頌²³⁾ 9장과 佾舞²⁴⁾를 바쳤다. 다음해 1404년에 朱橚이 조정에 와서 驕虞²⁵⁾를 올리자 永樂帝가 기뻐하여 연회를 베풀어 깊이 우대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朱橚이 모반을 꾀하고 있음이 발각되지만 朱棣는 모두 용서한 반면²⁶⁾ 靖難에 가담하고 자신을 지지하였던 동생 齊王 榑에 대해서는 매우 각박하여 바로 庶人으로 폐위시켰다.^{27), 28)} 명나라 초 정치적인 소용돌이의 혼란 속에서도 朱橚과 永樂帝는 同母兄弟로 우애가 두터웠으며 永樂帝는 너그럽게

동생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5) 이슬람교도와 謀叛事件

朱橚은 성격이 일탈을 좋아하여 太祖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 법도를 위반한 것을 근거로 나라를 떠나 벌을 받기도 하였고, 建文帝 당시에도 禍를 당한 적이 있다. 비록 간사한 사람들의 모함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明史·本傳』에서는 朱橚을 일러 '時有異謀'라고 하였다. 朱棣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에게 의해 모반을 꾀한다고 고발되었다. 첫 번째는 1405년(43세)의 일이고 또 한 번은 1420년(48세)의 일이다. 1420년의 일은 매우 엄중하여 本傳 중에 기재하고 있는데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후세 사람들이 朱橚이 정말 다른 뜻을 품었는지 의심토록 하고 있다.

예로 沈德符의 『萬曆野獲編』 卷4 '周定王異志'조에 29)주숙은 이슬람종단의 隱主로 자신은 이슬람교도로 종단내의 반목으로 인하여 반역죄의 무고를 받아 謀叛事件에 연루되는 등 파란 많은 인생역정이 이

pp.129-130.

23) 頌: 임금의 德을 칭송하는 가사

24) 佾舞: 종묘나 문묘 제향 때에 여러 사람이 여러 줄로 벌여 서서 추는 춤. 줄의 수와 사람 수는 가로세로가 꼭 같으며 팔일무·육일무·사일무·이일무 따위가 있다.

25) 驕虞: 신령스러운 상상의 짐승. 흰 바탕에 검은 무늬와 긴 꼬리가 있으며, 생물을 먹지 않고 살아 있는 풀을 밟지 않는 동물로, 성인의 덕에 감응하여 나타난다고 한다.

26) 明實錄·太祖實錄, 卷九下, 第六冊, 中國, 영인본, pp.129-130.

27) 明實錄·太宗實錄, 卷二百三十, 第九冊, 中國, 영인본, p.2229.

28) 明實錄·太宗實錄, 卷二百三十, 第九冊, 中國, 영인본, p.2258.

29) 沈德符, 萬曆野獲編 卷四, 北京, 中華書局, 1959, pp.108-109.

어졌다.^{30),31)} 河南 中護衛軍丁 俺三를 만일 丁俺三
으로 읽더라도 뜻은 통할 수 있지만 『藩獻記·周藩』
와 永樂十九年春, 以俺三告王不軌 『罪惟錄·帝紀』
卷3에 “周王櫛護衛俺三等, 上變告, 召王, 示以所告,
王辭窮, 姑赦不問.” 朱櫛의 호위 俺三 등이 천자에게
변란을 고하자 朱櫛을 불러 고변한 것을 보여주자 朱
櫛이 변명할 말이 없게 되자 사면하고 불문에 붙였다
라고 하여 그 사람이 俺三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

다.

俺은 희귀한 姓씨로 『萬曆野荻篇』 및 『藩獻記』에서
는 이를 俺으로 틀리게 기재하고 있지만 이 성은 一
賜樂業教 즉 이슬람교에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던 姓
으로 陳垣의 『開封一賜樂業教考』에서는 明나라
1488년(弘治 2) 開封 ‘重建清真寺記’의 비문을 인용
하여 말하고 있다³²⁾.

年代	나이	年譜
1361年	1세	7月 1日, 아버지 朱元璋, 어머니 高麗 출신 碩妃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로 出生하다.
1368年(洪武元年)	8세	太祖 洪武帝 明나라 建國하다.
1370年	10세	吳王으로 封해지다.
1374年	14세	孫貴妃 3年 服을 입도록 명받았다.
1378年	18세	周王으로 封해지고, 安徽省 鳳陽에 머물렀다.
1381年	21세	開封으로 나아가 宋나라 때 古宮을 周王府로 삼다.
1389年	29세	鳳陽으로 가다
1381~89年	21~29 세	『保生餘錄』, 『普濟方』 편찬
1390年	30세	雲南으로 옮겨가다. 『袖珍方』 시작하다.
1391年	31세	다시 蕃地로 돌아옴 『袖珍方』 編纂하다.
1398年	38세	洪武帝 崩御하고 建文帝 朱允炆 즉위하다.
1399(建文元年) ~1401年	39~41 세	王 削奪당하고 蒙化로 귀양, 家族이 흩어지다.
1402年	42세	朱棣의 靖亂으로 京師에 鋼琴 당하다.
1402年(永樂元年)	42세	永樂帝 政權 奪取 후 爵位를 回復하다.
1403年	43세	開封으로 돌아가다.
1404年	44세	洛陽으로 封해주려하자 사양하다.
1406年	46세	『救荒本草』 간행하다. 元宮詞百章를 짓다.
1415年	55세	『袖珍方』 再 간행하다.
1420年	60세	俺三에 의해 謀叛한다고 永樂帝에게 고발당하다.
1421年	61세	謀叛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용서 받고 歸還하다.
1425年(洪熙元年)	65세	7月 20日 歿하다.

표 2. 朱櫛의 年譜

30) 明實錄·太宗實錄, 卷二百三十, 第九冊, 中國, 영인본,
p.2229.

31) 明實錄·太宗實錄, 卷二百三十, 第九冊, 中國, 영인본,
p.2258.

32) 陳垣, 開封一賜樂業教考, 見陳垣, 明清滇黔佛教考, 上冊,
北京, 河北教育出版社, 2000, p.64.

6) 朱橚의 死

永樂帝의 보살핌으로 생명을 부지한 朱橚은 周王으로서 개봉지역을 다스리며 평생을 살다가 1425년 3월에 병이 나서 7월에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났다.³³⁾ 宣德帝는 사사로이 叔父가 되는 朱橚이 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문병을 보내고 세자로 하여금 약을 살피고 보살피도록 하였으나 결국 사망하니 2일간 조회를 중지하여 그 슬픔을 표하고 관리를 보내 장례를 치르게 하고 定이라는 諡號를 내린다.³⁴⁾ 永樂帝가 사망한지 1년 후의 일이다.

朱橚은 장남 朱憲王 有敦을 비롯하여 有燭, 有烜, 有燭, 有燿, 有燭, 有燠, 有燠, 有燠, 有燠, 有燠, 有燠, 有燠 등 15명의 아들과 11명의 딸을 두었다.³⁵⁾

2. 朱橚의 著書

1) 『保生餘錄』

『保生餘錄』 內科·眼科·耳鼻咽喉科·外科·婦人科·小兒科의 六門으로 나누어져 있고 卷數는 나누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저술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丹波元胤의 『醫籍考』과 『普濟方』의 서문을 살펴보면 朱橚이 편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丹波元胤의 『袖珍方』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1524년 男汀 賴恩의 序에서 이르기를 옛날에 『保生餘錄』 일부가 있었는데 鄆鄉의 張廷韶와 선군자 介庵선생이 齊東에 거하실 때 나무판에 새겨 간행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였다.³⁶⁾

또 20대부터 의학에 뜻을 두어 일찍이 『保生餘錄』과 『普濟方』을 편찬하였다고 『袖珍方』 서문에 밝히고 있다.³⁷⁾ 일부에서 『保生餘錄』의 著者를 佚名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朱橚이 지은 것이 확실하다. 현재 明나라 때 판각한 『保生全集』이라는 책이 전해지

고 있는데 『保生餘錄』과 같은 책인 듯하다.

2) 『普濟方』

『普濟方』은 明나라 朱橚, 滕碩, 劉醇 등이 편집하여 15세기 초에 간행된 醫書이다. 明나라 이전의 醫書와 기타 관련된 서적을 광범위하게 모아 분류 정리하여 전 168卷으로, 明나라 초기 편수된 하나의 대형 醫方書이다.³⁸⁾ 현재 잔본이 겨우 남아 있을 뿐이며 靑나라 초기에 『四庫全書』를 편성할 때 426卷으로 개편하여 方脈總論·運氣·臟腑·婦人·嬰兒·鍼灸·本草 등 모두 100여 門이 있다. 『四庫全書提要』에서 모두 1960論과 2175類, 239圖이라고 하였다. 서술한 병증에 모두 論술과 治療方으로 되어 있으며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다. 다만 쓸모없는 내용도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이 흠이다. 인쇄본이 현존한다.³⁹⁾

靑나라 때 『四庫全書』가 만들어질 때 『普濟方』이 子部·醫家類에 수록되었고 『四庫全書提要』에는 朱橚이 스스로 교정을 하고 教授 滕碩과 長史 劉醇 등과 함께 고찰하고 수정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⁰⁾

『普濟方』 편찬 연대가 확실하지 않아 제가들의 주장이 각기 다르다. 그러나 『袖珍方』 序文에서 본인이 雲南 땅에 가서 『袖珍方』의 편찬을 시작할 때가 1390년(洪武23)이 되므로 『普濟方』은 朱橚이 1390년(30세) 이전에 편찬한 것으로 증명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普濟方』 版本은 다음과 같다.⁴¹⁾

- ▶ 明永樂刻本殘卷
- ▶ 明抄本殘卷
- ▶ 『四庫全書』本
- ▶ 據文溯閣『四庫全書』本抄本
- ▶ 廬江劉氏遠碧樓藍傳抄四庫本殘卷
- ▶ 舊抄本

33) 明實錄·宣宗實錄. 卷八上. 第十冊. 中國. 영인본. p.149, p.164.

34) 明實錄·宣宗實錄. 卷八上. 第九冊. 中國. 영인본. p.256.

35) <http://zh.wikipedia.org/wiki/朱橚>.

36)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2441.

37)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2441-2442.

38) 朱橚. 普濟方. 서울. 醫聖堂. 1993년. p.3.

39) 東洋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事典(4).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년. p.157.

40) 永容. 四庫全書總目(上冊). 北京. 中華書局. 1995년. p.872.

41)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년. pp.2439-2440.

3) 『袖珍方』

『袖珍方』은 명나라의 太醫 李恒 등이 1391년에 편찬한 방서로 『袖珍方』 또는 『袖珍方大全』라 한다. 이 책은 朱橚이 편찬한 『保生餘錄』, 『普濟方』을 근거하여 중국 명나라 宗室家와 周定王의 주재 하에 經驗方을 모아 엮은 것이다. 전체를 風寒暑 등 81門으로 나누었고, 內科·外科·婦人科·小兒科 등各科 질병을 포함하여 選方이 3077方이다. 매 病에 대하여 먼저 立論하고 뒤에 方을 덧붙였는데, 先方을 위주로 하고 수록된 方劑의 출처를 덧붙였다.⁴²⁾ 袖珍이라는 책명은 휴대하여 사용하는 데에 편리하다는 뜻이다. 후에 王永輔가 중간할 때 8卷으로 고쳤다.⁴³⁾ 1415년(永樂 13) 『袖珍方』를 교정하여 再 刊行할 때 朱橚이 직접 쓴 序文에서 『保生餘錄』과 『普濟方』을 본인이 간행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⁴⁴⁾

현재 전해지고 있는 『袖珍方』版本은 다음과 같다.⁴⁵⁾

- ▶ 明洪武間刊本
- ▶ 明永樂十三年乙未(1415) 刻巾箱本
- ▶ 明初刻本
- ▶ 明弘治五年壬子(1492) 楊氏清江書堂刊本
- ▶ 明弘治十八年乙丑(1505) 集賢書堂刊本
- ▶ 又明弘治十八年乙丑翻刻洪武間本
- ▶ 明正德二年丁卯(1507) 楊氏清江書堂刊本
- ▶ 明正德刻本
- ▶ 又明正德刻本 마이크로 필름
- ▶ 明嘉靖元年壬午(1522) 劉氏明德堂刊本
- ▶ 明嘉靖十八年己亥(1539) 楊氏清江書堂刊本
- ▶ 又同年熊氏種德書堂刊本
- ▶ 明刻本
- ▶ 又明刻本 마이크로 필름

食用部位	草部	木部	米穀部	果部	菜部	合計
葉可食	40/123*	8/33	0/0	0/0	14/19	62/175(237)
實可食	4/16	6/14	0/7	10/4	0/0	20/41(61)
葉及實皆可食	6/6	5/5	5/8	4/1	3/2	23/20(43)
根可食二十	9/15	0/0	0/0	2/0	0/21	1/17(28)
根葉可食	4/7	0/0	0/0	0/0	1/4	5/11(16)
根及實能可食	1/1	0/0	0/0	2/0	1/0	4/1(5)
根筍可食	3/0	0/0	0/0	0/0	0/0	3/0(3)
根及花可食	2/0	0/0	0/0	0/0	0/0	2/0(2)
花可食	0/0	0/5	0/0	0/0	0/0	0/5(5)
花葉可食	2/2	1/0	0/0	0/0	0/0	3/2(5)
花葉及實皆可食	0/0	0/2	0/0	0/0	0/0	0/2(2)
葉皮及實皆可食	0/0	2/0	0/0	0/0	0/0	2/0(2)
莖可食	1/2	0/0	0/0	0/0	0/0	1/2(3)
筍可食	0/0	1/0	0/0	0/0	0/0	1/0(1)
筍及實皆可食	1/0	0/0	0/0	0/0	0/0	1/0(1)
總 合	73/172 (245)	23/57 (80)	5/15 (20)	18/5 (23)	19/27 (46)	138/276 (414)

표 3. 『救荒本草』의 총수통계표

※ 40/123* 앞의 숫자는 本草原有植物數, 뒤의 숫자는 新增植物數.

42) 한국한의학연구원.
<http://jisik.kiom.re.kr/>

43) 한국한의학연구원,
<http://jisik.kiom.re.kr/>

한의학전명저총서DB.

한의학전명저총서DB.

44)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년.
pp.2441-442.

45)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년.
pp.2441-2442.

4) 『救荒本草』

역대로 본초는 한의학의 藥物學 書籍으로 수많은 서적이 刊行되었으나 救荒을 목적으로 지어진 本草 書는 이 책이 유일하다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⁴⁶⁾ 著述目的과 編纂科程을 卞同의 序文에 나타나 있다.⁴⁷⁾ 朱橚은 농사짓는 사람과 植物辨別에 능한 사람을 고용하여 생산되는 토양과 異名을 기술하고, 차고 뜨거운 성질과 달고 쓴맛 등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 받아 하나의 밭에 400여 종의 식물을 심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관찰하여 화공을 불러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꽃·열매·뿌리·줄기·껍질·잎사귀를 먹을 수 있는 것끼리 구별하였으며 채취하는 방법과 調理法을 기술하였다. 이 책의 그림은 실제식물의 형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백성들이 쉽게 변별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모두 414종의 식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식물의 분류와 종류는 아래와 같고 <表 3>에 나타내었다.

- 草木野菜等共四百一十四種(出本草一百三十八種, 新增二百七十六種)
- 草部二百四十五種
- 木部八十種
- 米穀部二十種
- 果部二十三種
- 菜部四十六種(葉可食 二百三十七種, 實可食 六十一種)
- 葉及實 皆可食 四十三種
- 根可食 二十八種
- 根葉可食 一十六種
- 根及實 皆可食 五種
- 根筍可食 三種
- 根及花可食 二種
- 花可食 五種
- 花葉可食 五種
- 花葉及實 皆可食 二種
- 葉皮及實皆可食 二種

著書名	刊行年度	共同著者	特徵 및 構成
『保生餘錄』	1390年 (洪武22) 이전	周王府	내과·안과·이비인후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의 六門으로 나누어져 있고 卷수는 나누지 않았다.
『普濟方』	1390年 (洪武22) 이전	周王府	나라 이전의 의서와 기타 관련된 책 모아 분류 정리하여 方脈總論·運氣臟腑·婦人·嬰兒·鍼灸·本草 등 모두 100여 門이다.
『袖珍方』	1391年 (洪武24)	太醫 李恒	『保生餘錄』, 『普濟方』등의 책에 근거하고 宗室家, 周定王의 주재 전체를 風·寒·暑 등 81門으로 나누었고, 내과·외과·부인과·소아과 등 각종 질병을 포함하여 選方이 3077개이다.
『袖珍方』 再간행	1415年 (永樂13)	周王府의 良醫	편찬과정과 간행에 대한 역사를 밝히는 내용의 序文을 직접 썼다. 교정·수정하여 재 간행 하다.
『救荒本草』	1406年 (永樂 4)	周王府	開封 周王府에서 2卷으로 처음 간행, 백성들이 굶주릴 때 곡식을 대신하여 식용 가능한 414여종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다.

표 4. 朱橚의 著述書

46) 剛西爲人. 本草概說. 大阪, 創元社. 1983. p.235.
47) 朱橚 原著. 柳枝軒·華文軒·含翠亭 合刻. 救荒本草. 京都. 京都書肆. 1716. pp.3-4.

『救荒本草』가 어떤 경로로 조선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1827년에 徐有榘는 林園十六志에 仁濟志 辟穀總論에서 食草木方, 食齋菜方, 食糝方을 설명

하고 葉可食 128種, 根可食 21種, 實可食 37種, 花可食 4種, 莖可食 3種, 筍可食 1種, 根葉皆可食 12種, 葉實皆可食 39種, 根實皆可食 5種, 花葉皆可食 3種, 根筍皆可食 3種, 根花皆可食 2種, 筍實皆可食 1種, 花葉實皆可食 1種, 葉皮實皆可食 2種 등 총 274종을 그림 없이 인용하였다.⁴⁸⁾

朱橚이 『保生餘錄』, 『普濟方』, 『袖珍方』, 『救荒本草』 등 여러 의서 편찬이 가능했던 이유는, 명나라 건국초기에 爲民政策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의학과 백성구휼에 관심이 많았던 朱橚의 애민정신의 바탕 위에 황제의 아들이자 周王府의 왕이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한 인재등용과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므로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普濟方』과 『救荒本草』은 후대 李時珍이 『本草綱目』을 편찬할 때 많이 인용하였다. 3종의 醫書와 救荒書는 명의 의학발전과 구황정책에 밑바탕이 되어 인구 증가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朱橚의 모든 저서는 開封에서 모두 이루어졌는데 周王府의 통치권자로서 인재등용과 자금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朱橚이 저술한 4종류의 書籍의 刊行年度와 共同著者, 特徵 및 構成에 대하여 <表 4>에 정리하였다.

III. 結論

周定王 朱橚은 학문이 뛰어나고 백성들을 사랑한 왕으로 명나라 初期 정치적인 혼란기에 과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醫書와 救荒書를 저술하여 의학발전과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朱橚의 生涯와 그가 지은 著書에 대하여 文獻記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朱橚은 1361년 7월 1일 朱元璋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永樂帝의 同母弟로 태어났다. 공식적인 문서에는 그의 어머니를 孝慈高皇后로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기록들을 종합하여 볼 때 후실의 자식으로 인정되고 生母는 고려 출신으로 碩妃로 추측되지만 사실 확인은 어렵다. 洪武帝가 죽고 建文帝가 황제로 등극하고 다시 永樂帝에게 양위하여 등극하는 과정에서

永樂帝의 同母弟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탄압과 수모를 당하지만 깊은 우애로 고난을 극복한다. 永樂帝의 보살핌으로 다시 開封으로 돌아와 저술활동을 하고 민생안정에 힘쓴다. 이슬람 종단 내부의 俺三과 俺誠간의 반목으로 俺三에 의해 조정에 수차례 叛逆을 도모한다고 고발당하나 모두 용서 받는다. 1381년(21세)부터 開封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1425년 향연 6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개봉지역을 다스렸으며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爲民政策을 펴고 德治主義를 실천한 모범적인 인물이다. 諡號는 定이고 15명의 아들과 11명의 딸을 두었다.

2. 朱橚은 학문이 뛰어났고 博學多識하였다. 詞賦를 잘 짓고, 원나라 궁중이야기를 100장의 시로 엮어냈으며 『袖珍方』의 서문도 직접 쓸 정도로 문장에 능하였다. 또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東書堂을 열고 長史 劉淳을 스승으로 삼아 세자를 가르치게 했다. 朱橚은 20대부터 『保生餘錄』, 『普濟方』, 『袖珍方』 저술을 지휘하고 감독할 정도로 의학적 지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백성을 구휼하기 위해 『救荒本草』를 지을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하였으며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朱橚은 20대부터 의학에 뜻을 두어 일찍이 『保生餘錄』과 『普濟方』을 편찬하였다. 『普濟方』은 명나라 이전의 의서와 기타 관련된 서적을 광범위하게 모아 분류 정리하여 만들었으며 이후 『四庫全書』를 편성할 때 426卷으로 개편하였다. 그 중 方脈總論·運氣·臟腑·婦人·嬰兒·鍼灸·本草 등 모두 100여 門이 있다. 『四庫全書提要』에서 모두 1960論과 2175類, 239圖이라고 하였다. 『袖珍方』은 『保生餘錄』, 『普濟方』을 근거하여 중국 명나라 宗室家와 周定王의 주재 하에 經驗方을 모아 엮은 책이다. 전체를 風寒·暑 등 81門으로 나누었고, 內科·外科·婦人科·小兒科 등 各科 질병을 포함하여 選方이 3077方이다. 매 病에 대하여 먼저 立論하고 뒤에 方을 덧붙였는데, 先方을 위주로 하고 수록된 方劑의 출처를 덧붙였다. 袖珍이라는 책명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휴대용 책이다.

4. 『救荒本草』는 1406년 饑饉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만든 救荒書이다. 朱橚은 농부와 植物辨別에 능한 사람의 자문을 받아 하나의 밭에 400여 종

48) 徐有渠. 林園十六志-仁濟志. 서울. 영인본. 1827. pp.782-814

의 식물을 심어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관찰하고 화공을 불러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생산되는 토양과 이름을 기술하고, 차고 뜨거운 성질과 달고 쓴맛 등을 기술하고, 꽃·열매·뿌리·줄기·껍질·잎사귀 등 먹을 수 있는 부위를 구분하고 채취하는 방법과 調理法을 기술하였다. 이 책은 구황서의 시초가 되었으며 실용성이 인정되어 30여 차례나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들어와 徐有榘에 의해 林園經濟十六志 저술에 인용되었다.

參考文獻

<논문>

1. 羅桂環. 朱橚和他的<救荒本草>. 自然科學史研究. 北京. 1985년. pp.189-194.
2. Edward L. Dreyer. Early Ming China-A Political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CA. 1982. pp.1355-1435.

<단행본>

1. 剛西爲人. 本草概說. 日本大阪. 創元社. 1983. p.235.
2. 見陳垣. 明清滇黔佛教考. 上冊. 河北教育出版社. 2000년. p.91.
3. 東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편저. 東洋醫學大事典 (4).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년. p.157.
4. 明史·本紀第四·恭閔帝. 第1冊. 中國. 영인본. p.65.
5. 明史·列傳第四·帝王一. 第十二冊. 中國. 영인본. 1974. p.3559.
6. 明實錄·太祖實錄. 卷九. 中研院史語所校印本. 第1冊. 영인본. p.115.
7. 明實錄·太宗實錄. 卷一. 第六冊. 中國. 영인본. pp.6-7.
8. 明實錄·太祖實錄. 卷九下. 第六冊. 中國. 영인본. pp.129-130.
9. 明實錄·太宗實錄. 卷二百三十. 第九冊. 中國. 영인본. p.2229, 2258.
10. 明實錄·太祖實錄. 卷四十四. 第七冊. 中國. 영인본. p.691.

11. 明實錄·宣宗實錄. 卷八上. 第九冊. 中國. 영인본. p.256.
12. 明實錄·宣宗實錄. 卷八上. 第十冊. 中國. 영인본. p.149, 164.
13. 明實錄·仁宗實錄. 卷八上. 第九冊. 中國. 영인본. p.256.
14. 永容. 四庫全書總目(上冊). 北京. 中華書局. 1995. p.872.
15.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p.2439-2442.
16. 吳哈 原著. 박원호 옮김. 朱元璋傳. 서울. (주)지식산업사. 2003. p.401. pp.405-406.
17. 李清. 三垣筆記. 中華民國. 北京. 中華書局. 1982. p.249.
18. 徐有榘. 林園十六志-仁濟志. 서울. 영인본. 1827. pp.782-814
19. 查繼佐. 罪惟錄·列傳四·周定王橚. 四部叢刊三編. 第十三冊. p.40
20. 沈德符. 萬歷野獲編 卷四. 北京. 中華書局. 1959년. pp.108-109.
21. 張廷玉等撰. 明史十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1. pp.3565-3566.
22. 朱橚. 普濟方. 서울. 醫聖堂. 1993. p.3.
23. 朱橚 原著. 柳枝軒·華文軒·含翠亭 合刻. 救荒本草. 京都. 京都書肆. 1716. pp.3-4.
24. 朱橚 原著. 王家葵. 校注救荒本草校釋與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7. p.363.
25. 陳垣. 開封一賜樂業教考. 見陳垣. 明清滇黔佛教考. 上冊. 北京. 河北教育出版社. 2000. p.64.

<전자문헌>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DB. <http://jisik.kiom.re.kr/>
2.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
3. <http://zh.wikipedia.org/wiki/朱橚>.
4. <http://zh.wikipedia.org/wiki/朱元璋>.